

석유화학 구조재편특별법 제정한다!

산업부, 자율적 사업재편 지원 위해 ... 코스트 경쟁력 향상도 적극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9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5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환경이 2014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가와 함께 원료 나프타(Naphtha) 가격도 하락해 석유화학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고, 국내 전 방산업의 수요 회복과 생산설비 증설로 내수와 수출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단지의 잉여 에너지·부산물 교환과 유허 생산설비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공동배관망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단지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콘덴세이트(Condensate) 등 저가 원료를 활용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산업부는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소재·부품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방안은 1월9일 오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석유화학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한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자율적인 산업구조 재편 작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생산 효율성 향상과 공정 혁신을 통한 원감 절감 노력을 배가하고, 중소 협력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화학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국내 환경규제 강화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흥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석유화학협회장인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정유성 삼성종합화학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최중재 대광산업 사장 등 11개 석유화학기업 CEO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1/09>